

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, 코로나19 극복 위한 ‘사랑나눔 헌혈 캠페인’ 실시

-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은 29일 수련원 전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혈액원 헌혈버스를 이용하여 ‘사랑나눔 헌혈 캠페인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- 수련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감염 우려로 헌혈에 대한 사회적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역 내 혈액 보유량 감소와 수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천의료원을 혈액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마련했다.
- 또한 헌혈 참여자는 ‘생활 속 거리두기’ 행동수칙에 따라 일정 간격 줄서기, 마스크 착용, 사전 발열 검사,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.
-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은 “이번 헌혈 캠페인을 통해 작지만 혈액 수급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.”며 “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.” 고 말했다.
- 2002년 개원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은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8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. 그 동안 대통령 표창, 우수청소년시설,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우수운영기관으로 표창 받은 바 있으며, 「2016, 2018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」에서 ‘최우수등급’, 2019년 경상북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‘최우수’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.